

말씀의 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 방주 2 <창세기 6:11~16>

방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 물질, 생명을 모두 쏟아 부어야 가능한 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롱과 비난, 또 외로움을 감수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 역청이라는 특수한 재료,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재료들을 지정하시면서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 이 엄청난 부담... 누구 위해서 일까요?

창 6:14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노아를 위해서입니다. 수고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노아가 수고하여 만든 배에 노아가 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 헌신 등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모두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그 믿음생활, 그 교회 생활, 뿌린 모든 헌신과 주를 위한 수고가 결국 여러분이 거두게 될 면류관이며, 여러분 영혼이 탈 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생활은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한 은혜의 시간이며 감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구원하는 교회로서의 건강한 기능”을 세워가기 위해서,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2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안과 밖을 구분하고 지키라”입니다.

창 6:14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부로는 칸들을 막고 구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오는 짐승들이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들어온 모든 짐승들이 우왕좌왕하고 무질서한 풍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적용하자면, 교회내부적인 조직과 구분이 되어있어서 교회로 들어 오는 자들을 소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같은 종류끼리, 또 묶여두어도 무리가 없는 것끼리 칸막이를 해서 우리에게 넣어두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에 걸 맞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며 소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들어온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저 들어와 있는 자들이 새로 들어오는 자들이 칸같이 들어가서 잘 소속되도록 돕는 기능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회생활을 시작한 여러분들이 칸이 되어주십시오. 공간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영혼들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도와주어서 소속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아야 합니다. 그 물질이 바로 역청입니다. 식물성 아스팔트로서 방수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이 새면 구원의 방주로서의 기능은 전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철저하게 안팎으로 칠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과 기도로써 세상과 구분되어야 하며 세상문화가 들어와서 거룩하고 순전한 은혜를 희석시키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유주의, 동성애, WCC의 주장과 같은 혼합주의, 인본주의를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수적이고도 건전한 성경적 신학으로 안과 밖에 틈틈이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창과 문을 이렇게 내라”입니다.

창 6:16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약 45cm)에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문의 위치가 좀 특이합니다. 너무 위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비가 들어치기 딱 좋은 위치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대각선으로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도 볼 수 있도록 만든 창문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세상의 징조를 분별하도록 만든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방주 3층에 있어야만 합니다. 방주 1, 2층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여져서 3층에서의 신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 성숙한 신부의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문과는 다르게 문은 옆으로 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방주에 쉽게 탈 수 있도록 열려있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합니다. 문턱이 높으면 안됩니다. 누가 오더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난한자나 부한자나, 높은 자나 천한 자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열려있지만,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때를 우린 알 수 없습니다. 창 7:16절에 방주에 다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는 **“하나님이 닫아 넣으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전에 한명이라도 빨리 들어오도록 우리가 때를 얻던 못 얻던 복음을 전해야 하며, 우리 또한 안전하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눅 13:22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상하게 교회가기 싫어지고, 잘 안 믿어지고,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이러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교회 안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소속되어서 하나님이 닫으시는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며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누구 위해 만들었을까요? 교회는 누구 위해 세우게 될까요? 믿음생활, 믿음 준비, 봉사, 헌신... 누구 위해서 하는 걸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이 전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교회내부에 칸을 만들고, 자기 자리로 분명히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된 우리가 새로 들어오는 자들을 위해서 자리가 되어주십시오. 교회 내외부는 바른 신학의 역청을 구석구석 칠해서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분명하게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하나님과 세상을 항상 주시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옆으로 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안에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영혼들을 교회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때 “구원하는 기능”은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 9. 6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성 경 봉 독 ----- 창세기 6:17~22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 방주 3”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교제의 시간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7:30

* 예배중 헌금시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